

## 법제처, 청소년 대상 기본법제교육 실시

- 5월 18일 용인 동백중 포함한 20개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에서 순차 진행
- 청소년 관련 법령 배우고, 직접 법안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8일 용인 동백중학교를 비롯한 20개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법제관 기본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우리 청소년들이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곳이 참가한다.

이번 기본법제교육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법령의 내용을 배우고,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학교폭력, 저작권, 아르바이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여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진다.

청소년법제관들은 기본법제교육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학교규칙 제·개정대회, 독서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책임자	과 장	배개나리	(044-200-6571)
		담당자	주무관	백선주	(044-200-6583)